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이사야 2:1-5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새482(통49) 참 즐거운 노래를

새199(통234) 나의 사랑하는 책

새205(통236) 주 예수 크신 사랑

1. 여는 질문

목적은 가지고 (예를 들어 친교, 운동, 부흥 집회를 위해)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특별히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 장관입니다. 함께 올라가면서 서로 의논하고, 격려하고, 돌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관계가 깊어집니다.

2. 본문 이해

이사야 1장은 우울하고 암담한 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신실하지 않고 부패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모두 부정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은은 찌꺼기가 가득하고, 포도주는 물이 섞이고, 고관들이 도둑과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사야 2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소망의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현실을 바라보십니다(사 2:2-4). 이사야는 하나님의 산이 다른 산들 위에 우뚝 서고 많은 백성이 그리로 몰려오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따릅니다.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듭니다. 정치적 증오나 경제적 억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찾아오는 공의와 평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비전의 전반부(2-3a절)는 미래의 어느 때(“말일에,” 2절)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시온 산이 다른 모든 산들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거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는 땅 위에 높이 솟아올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만방”과 “많은 백성”(2b, 3a, 4a절)이 그리로 몰려옵니다. 후반부(3b-4절)는 만방이 왜 함께 올라가는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가르침과 교훈을 받으러 올라갑니다(3b-4a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드러나면서 이들은 무장해제 프로그램을 폭넓게 시작합니다(4b-c절). 자기들의 무기를 쳐서 농기구를 만듭니다. 이것은 무장하라는 오래된 요구를 뒤집는 일입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을 3:10).

이사야는 야곱의 집을 향해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합니다(사 2:5). 이것이 앞의 비전(2:1-4)에 대한 극적인 결론일 수도 있고 이어지는 권면(2:6-4:1)을 들으라는 촉구일 수도 있습니다. 앞의 경우라면, 듣는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장래의 비전을 눈앞에 닥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일로 만듭니다.

예루살렘으로 몰려가는 만방(2b절)이 서로 “올라가자” 또 그 길로 행하자(3a절) 말한 것처럼, 이사야는 야곱의 집(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 그 장래 일이 현실로 다가온 것처럼 걸어가자고 권면합니다. 이와 달리, 5절의 권면을 2:6-4:1이 심판하는 길을 따르지 말고 빛에 거하자고 호소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2:6-4:1은 야곱의 집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3. 말씀 속으로

1. 하나님의 집의 전이 무엇인가요?

시온 산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 임재의 자리입니다. 시온이 다른 산들 위에 우뚝 솟고 사람들이 순례하는 중심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영적인 주장입니다. 만방이 결국 참된 중심인 시온을 향해 흘러갑니다.

2. 이사야서는 빛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빛은 이사야서에서 강력한 이미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빛이 백성에게 소망을 줍니다(9:2). 하나님의 백성은 만방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42:6). 어둠이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4. 삶 속으로

1. 하나님의 전의 산에서 백성은 무엇을 얻으리라 기대하나요?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을 이끌어주셔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3절에는 결국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방향을 따르게 된다고 강조하는 구절이 넷 있습니다. “그가 그 길을 가르친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한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2. 교회는 장차 임할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이사야의 비전에서 어떤 교훈을 만나요?

이사야의 비전은 교회를 향해 평화를 위해 살고 또 증거하라고 부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평화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평화를 위해 매일 일합니다. 온 나라가 폭력으로 치달을 때도, 교회는 중재하며 공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우쳐줍니다.

5. 암송구절: 이사야 2:4b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6. 자녀와의 나눔

산 위에 올라가면 산 아래서 흔히 보지 못하던 어떤 것을 보게 되나요?

위선적 경건

새322(통357)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새216(통356) 성자의 귀한 몸

새321(통351) 날 대속하신 예수께

1. 여는 질문

1.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사탄이 요구할 때,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나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자기의 유익을 얻는 데 악용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아하스 왕에게서 봅니다. 우리는 부적절한 제안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응답도 거절해야 합니다.

2. 본문 이해

앗수르가 불길하게 떠오를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브라임)과 인접한 수리아(아람)가 연합하여 앗수르에 맞서 반발합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함께 참여하기를 거부하자,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예루살렘을 치도록 군대를 보냅니다. 연합군이 다가오자 아하스 왕이 사시나무 떨 듯이 떨립니다. 두려움에 빠져 앗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공물을 보내며 급히 도움을 청합니다(왕하 16:7-9).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어느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십니다(사 7:3-9). 그 연합하는 일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키면서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또 하나님을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7:9).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위기를 벗어나고 미래를 확보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철저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당신을 신뢰하도록 확신을 주는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은혜롭게 말씀하시지만, 아하스는 거절합니다. 불경스러운 일이라면서(참조. 신 6:16) 자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 아하스가 경건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왕은 아마 진작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군사적인 힘만큼 의지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커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강한 군사력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아하스가 거절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그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사 7:13-14a).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여전히 신실하고 은혜로우십니다. 머지않아 한 아이가 “젊은 여자”(히브리어 ‘almah)에게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젖을 땔 무렵까지는 예루살렘의 위협하는 일이 사라질 것입니다(14-16절). 이사야는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를 말합니다. 아이의 이름 임마누엘(“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해줍니다. 아이가 젖을 땔 무렵 “영긴 젖과 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15절). 예루살렘이 포위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3. 말씀 속으로

1. 징조를 거절하는 아하스 왕은 실제로 어떤 것에 관심이 있나요?

아하스는 시종일관 자기의 안전에만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일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실까 두려워합니다. 그저 경건을 가장하여 자기의 용기 없는 모습을 숨기려고 할 뿐입니다.

2.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영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15절)에서 어떤 추측을 할 수 있나요?

포위전은 식량이 떨어져 굶어죽게 만듭니다. 어린 아이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예. 왕하 6:25-30; 애 2:11-12, 20). 그런데 이 아이가 젖을 땔 무렵에는 “영긴 젖과 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포위 상태에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4. 삶 속으로

1.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어떻게 응답하나요?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흔히 경건하고 의로운 것 같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속이며 방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나요?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에서, 포르투갈의 젊은 예수회 사제 세바스티안 로드리그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남들이 고통당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가 변민합니다. 로드리그는, 이미 배교했지만 자기가 후미에(그리스도 형상)를 밝을 때까지 구덩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로드리그가 후미에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자가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밟아라, 밟아라. 네 발의 고통을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안다. 밟아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사람들에게 밟히기 위해서다.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은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기 위해서다.” 로드리그는 후미에를 밟습니다.

5. 암송구절: 이사야 7:11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6. 자녀와의 만남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당당한 적이 있나요? 진짜 관심사를 감출 때, 속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나요?

셋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이사야 11:1-9

새로운 왕

새411(통473) 아 내 맘속에

새66(통20) 다 감사드리세

새453(통506) 예수 더 알기 원하네

1. 여는 질문

사 11:1-9의 장면과 우리가 보는 신문 제목은 서로 얼마나 다른가요?

평화에 대한 이사야의 비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현실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 11장의 평화 메시지를 의지하고 그것을 위해 살 수 있나요? 이런 평화를 향한 소망의 실마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2. 본문 이해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고통과 절망의 땅에 소망을 불어넣으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삼상 16:1)의 후손 가운데서, 낙심한 다윗 왕조 가운데서, 한 왕을 일으키십니다. 사 2:1-5에서 그러하듯이 이 비전은 심판의 맥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장대한 나무들을 꺾고 뺨뺨한 숲을 베십니다. 그 때 갑자기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랍니다(11:1). 패배의 어두운 밤을 지나 영광스러운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새로운 왕의 모습 속에(1-5절) 그리고 우주적 화목 속에(6-9절) 펼쳐집니다.

새로운 왕이 자기 권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니다. 이제까지 다윗 가문 왕들이 이루지 못한 일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합니다(2절). 불가능하던 일이 영을 통하여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타납니다. 유다는 모든 절망을 물리칠 새로운 가능성의 인물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왕이 인간 영역의 공의를 세우면 온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간 세계가 회복되면 창조 세계도 회복됩니다. 온 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위해 또 후손을 위해 평화를 원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를 향한 갈구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전쟁터의 그루터기를 봅니다. 패배와 죽음의 상징입니다. 다 끝나버린 나라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죽음의 상징으로부터 새로운 것이 솟아나는 것을 봅니다. 예언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6절) 지내는 평화를 내다봅니다.

이 예언은 두 가지 도전을 줍니다. 첫째, 나무 그루터기 위에서 춤을 추는 영을 지켜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행하시는 것을 보도록 준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명 없다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풍요로운 새 삶을 만들어내실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이 예언은 우리가 장래의 왕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의 공의와 평화를 위해 결정하고 행동하는 특별한 지혜를 가진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라고 합니다.

3. 말씀 속으로

1.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새 짝은 어떤 왕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새 왕은 여러 가지 속성을 보여 줍니다: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하나님 경외. 그는 눈과 귀가 아니라 공의와 공평으로 판단합니다. 언약에 따른 이런 통치의 유익을 얻는 자는 가난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입니다(2-4절).

2. 평화의 나라에 대한 비전(6-9절)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요?

이리 표범 사자와 곰이 어린 양 염소 송아지 같은 가축들과 함께 조화롭게 삽니다. 포식동물들은 약한 자 잡아먹으려는 생각이 없고, 이전의 잡아먹히던 가축들은 맞서는 법을 배웁니다. 이리가 꼬리를 흔들며 용감한 어린 양과 함께 지냅니다.

4. 삶 속으로

1. 평화의 나라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발견하나요? 평화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 차원에서 전쟁으로 찢겨진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눕는다”는 이미지는 온전한 평화에 대한 상을 가슴 깊이 느끼게 해 줍니다. 여기서 하나님 성품을 바라 봅니다: 사랑과 공의, 긍휼과 의, 용서와 자비. 이러한 성품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최소한 개인적으로는, 먹이고 양육하는 법을 아는 평화의 나라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평화의 나라를 구현하는 일에 얼마나 나서고 있나요?

하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이라고 행동하는 세상의 단계에 있을 때도, “이미”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둠 속에 넘어질 때도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5. 암송구절: 이사야 11:2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6. 자녀와의 나눔

나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나 거리를 두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나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거룩한 길

새91(통91)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새242(통233)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새455(통507)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 여는 물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다”(시 23:3)라는 구절을 암송할 때, 우리는 어떤 길을 기대하나요? 그 길을 사 35장에서 찾을 수 있나요?

그 길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는 길입니다(시 23:6). 길을 가는 어떤 사람에게나 심지어 바보 같은 사람에게도 떨어진 재앙들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35:8). 사실 우리가 어리석게 구는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은 우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줍니다. 광야는 신실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어가는 평화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베풀고 지켜주십니다.

2. 본문 이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사 35:1). 모든 것이 기쁘게 뒤바뀌는 말씀입니다. 이 앞에는 에돔에 대한 음울한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진노하십니다(34:2). 하나님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시고 진멸하시기로 한 에돔 위에 내립니다(34:5).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됩니다”(34:9). 에돔은 이 땅의 지옥입니다. 이 두 장이 왜 나란히 붙어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 역사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따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잔인한 군대가 쳐들어와 성읍을 멸합니다.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고 남은 자들을 멀리 떨어진 땅으로 잡아갔습니다. 잡혀간 사람들과 고국 사이에는 끝없는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런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선포합니다. 광야에 꽃이 핀다고 합니다. 광야의 사나운 짐승들이 평화롭고 온순한 짐승들이 된다고 합니다.

이사야는 잡혀가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새로운 큰 길을 보여줍니다(35:8). 광야에 똑바로 펼쳐진 길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합니다”(35:9). 다시 유다로 돌아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길이 없다 생각할 때 길을 내실 수 있습니다. 장래에 대해 절망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광야에 꽃이 피게 하실 수 있고 오늘의 광야를 거쳐 집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삽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실 만큼 거친 광야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과 꽃과 갈대를 찾지 못하실 만큼 메마른 사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얻게 하지 못하실 만큼 약한 무릎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찾지 못하실 만큼 절망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아무도 막지 못하는 무한히 큰 소망이 필요합니다.

광야에 있어서 모든 상황이 메말라 보일 때, 예언자가 선포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 없는 곳이라 여겨지는 곳에서도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고, 종들을 구원하여 자유를 얻게 하고, 포로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광야는 죽음을 의미하는 좋은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황무지에서 죽고 맙니다. 포로로 잡혀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광야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3. 말씀 속으로

1.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두 가지 길(애굽에서 나오는 길과 바벨론에서 나오는 길)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길은 광야에 꽃이 피고 생명이 넘쳐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광야는 더 이상 시험과 갈등과 고통이 있는 두려운 자리가 아닙니다. 기뻐하고 노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드러냅니다.

2. 광야를 지나는 이 길에 누가 있나요(35:8-9)?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가지고 안전하게 걸어갑니다. 거룩한 길은 포로들에게 장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광야는 갈등의 길이 아니라 소망의 길이 됩니다. 이 소망의 길에서는 우매한 자도 방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 삶 속으로

1.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순진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일들이 분명한데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의 방식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사 35:4). 약한 자들은 힘을 얻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용기를 얻습니다.

2.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 될 수 있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눈을 뜨는 것도 아니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모두 다시 걷는 것도 아니고, 잡혀간 사람들이 다 풀려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 때도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5. 암송구절: 이사야 35:8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도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뒷부분 일부 수정)

6. 자녀와의 나눔

실수로 혹은 억지로 잘못된 곳에 있다 돌아오게 되었다면, 얼마나 기뻐할까요?